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초점)-레딧 주도 개인투자자 열풍 유럽까지 확산
 - ◇ (칼럼)-바이든, 인플레이션 리스크 피하며 경기 부양할 수 있을까?
 - ◇ (단독)-韓 무위험지표금리 '국채·통안 RP' 선정..산출기관·방법 후속논의
 - ◇ (초점)-최근 2 주간 원화 절하폭 가팔랐던 이유와 단기 전망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춘절을 앞둔 중국에서는 코로나 19 우려 속에 많은 사람이 고향 방문을 포기했다. 사진은 예년보다 한산한 베이징역 대합실. (로이터/토머스 피터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2월12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107.0	1.5%	-1.9%	+6.5%	유로	1.2118	0.6%	-0.8%	+8.9%
100엔 대비	1,050.5	0.9%	0.1%	+1.1%	엔	104.93	0.4%	-1.6%	+5.2%
유로 대비	1,336.1	0.7%	-0.7%	-2.3%	위안	6.4342	0.6%	1.5%	+6.7%
위안 대비	170.62	1.2%	-2.5%	-0.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31,458.40	1.0%	2.8%	+7.2%
코스피	3,100.58	-0.6%	7.9%	+30.8%	나스닥	14,095.47	1.7%	9.4%	+43.6%
코스닥	964.31	-0.3%	-0.4%	+44.6%	S&P500	3,934.83	1.2%	4.8%	+16.3%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MSCI APxJP	733.45	2.3%	10.8%	+19.8%
국고채 3Y	0.995%	1.3bp	1.9bp	-38.4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5Y	1.337%	2.6bp	0.2bp	-14.5bp	미국채 2Y	0.111%	0.6bp	-1.0bp	-144.0bp
국고채 10Y	1.831%	4.0bp	11.8bp	+3.0bp	미국채 10Y	1.210%	4.1bp	29.8bp	-99.8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유가(WTI)	59.47	4.6%	22.6%	-20.5%	한국 5Y	22.7bp	-0.6bp	0.8bp	+0.1bp
금(현물)	1,823.46	0.7%	-3.9%	+25.0%	일본 5Y	14.9bp	0.0bp	-0.1bp	-4.5bp
TR상품지수	2,773.19	2.0%	3.5%	+7.8%	중국 5Y	29.1bp	-0.4bp	1.1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2월 15일(월)>

- 관세청, 2월 1-10일 수출입 동향
- 기재부, AMRO(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연례협의 실시(14:00)
- 질병관리청, 코로나 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 발표(11:00)

<16일(화)>

- 한은, 1월 수출입물가지수(06:00)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10:00)
- 금감원, 2021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12:00)

<17일(수)>

- 기재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07:30)
- 금융위원장·금감원장 국회 정무위 참석(10:00)
- 한은, 2020년 12월중 통화 및 유동성(12:00)

<18일(목)>

- 기재부, 녹실회의(08:00)
- 금감원, 2020년 IPO 시장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12:00)
- 한은, 1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12:00)
- 통계청,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 금융위원장·금감원장 국회 금융위 정례회의 참석(15:00)

<19일(금)>

- 한은, 1월 생산자물가지수(06:00)
- 기재부, 2월 최근경제동향(10:00)
- 기재부, 부총리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참석(11:00)
- 한은, 2020년 12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12: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2월 15일(월)>

- 일본, 4분기 GDP (08:50)
- 일본, 12월 산업생산 수정치 (13:30)
- 유로존, 12월 산업생산 (19:00)
- 미국, 중국, 홍콩, 대만 휴장

<16일(화)>

- 호주, RBA 통화정책 회의록 공개 (09:30)
- 유로존, 4분기 GDP 추정치 (19:00)
- 미국, 2월 뉴욕연은 제조업지수 (22:30)
- 중국, 대만 휴장

<17일(수)>

- 일본, 2월 로이더단칸 제조업·비제조업 지수 (08:00)
- 일본, 12월 기계류주문 (08:50)
- 일본, 1월 수출입 (08:5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미국, 1월 생산자물가·소매판매 (22:30)
- 미국, 1월 산업생산 (23:15)
- 미국, 12월 기업채고·소매채고 (자정)
- 미국, 2월 NAHB 주택시장지수 (자정)
- 중국 휴장

<18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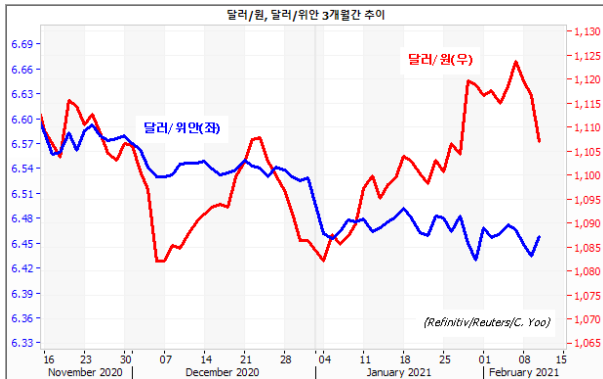
- 미국, 연준 FOMC 1월 26-27일 정책회의 회의록 공개 (04:00)
- 미국, 1월 건축허가·주택착공 (22: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 미국, 2월 필라델피아 연은 경기지수 (22:30)
- 유로존, 2월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자정)

<19일(금)>

- 일본,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08:30)
- 일본, 2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09:30)
- 유로존, 12월 경상수지 (18:00)
- 유로존, 2월 마켓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 (18:00)
- 미국, 2월 마켓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 (23:45)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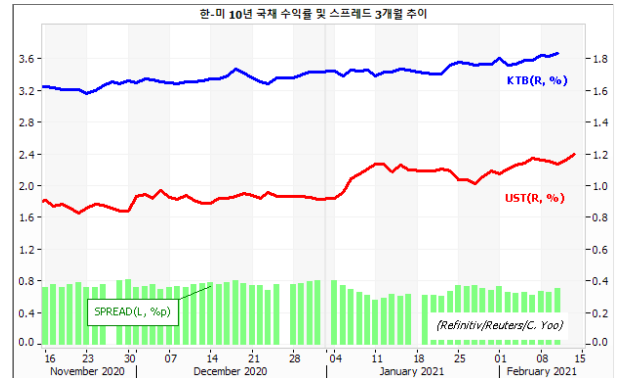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위험 선호 성향과 미국 국채 금리 움직임에 따른 글로벌 달러 흐름을 반영하며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00-1120 원이다.
- 미국의 추가 재정 부양책 확정 기대로 위험 선호 여건이 마련되며 투자심리는 굳건하다. 이에 국내 외 증시의 조정 압력이 한층 둔화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크게 잦아드는 모양새다.
-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주요 저항선인 1.2% 선을 상회하면서 금리 상승이 촉발할 변동성 확대 우려를 간과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경제 회복 기대가 앞서 반영되면서 다른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달러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만큼 달러/원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달러/원 상·하단 저항을 떠받치는 여건에 수급까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있어 당분간 환율은 레인지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이에 환율은 60일 이동평균선인 1100 원 부근에서 하단을, 100일 이평선이 지나는 1120 원 부근에서 상단 저항을 받으며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주는 미국의 1월 소매판매·산업생산 지표와 함께 FOMC 회의록(현지시간 17일) 공개 등이 주요 관심사다. 국내 지표로는 1월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18일), 2020년 12월 말 국제투자대조표(19일) 등 발표가 예정돼 있다. 중국 금융시장은 17일까지 춘절로 휴장한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 관련 뉴스와 국고채 장기물 입찰 결과 등을 반영하며 등락할 전망이다.
- "이 레벨은 말도 안 된다"고 여겨졌던 국고채 10년물 금리 1.8%, 3년물과 10년물 금리 스프레드 80bp가 이미 훌쩍 뚫린 상황이지만 저가 매수로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다.
-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꿈틀하고 있는 사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1.20%를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동력을 다지고 있다.
- 여기에 이번 주부터 국고채 장기물 입찰이 대기하고 있는 데다 주말에는 기획재정부가 다음 주 모집 방식 국고채 비경쟁 입찰 규모와 만기 등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 정부와 여당은 이번 주에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본격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 시장에선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20조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최근 기관과 개인의 헝거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코스피 시장의 동향도 채권시장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매도세가 주춤한 외국인 이 다시 주식 매수로 돌고 주가 상승세가 강해질 경우 채권시장의 분위기 반전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 미국 금융시장은 15일 조지 워싱턴 탄생일로 휴장한다. 중국의 춘절 연휴도 17일까지 이어진다.
- 미국의 1조 9000억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일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의사가 발표된다. 테이퍼링 논란에 대한 연준 의원들의 의견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초점)-레딧 주도 개인투자자 열풍 유럽까지 확산

런던 (로이터) - 미국에서 일어난 온라인커뮤니티 레딧 주도의 개인투자자 투자 열풍이 유럽에서도 재현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이 전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의 젊은 투자자들은 빠른 속도로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합류하고 있고 이들은 미국의 게임스톱, AMC 에서와 같은 투자 열풍을 재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영국 소재 온라인 거래 플랫폼 '프리트레이드'에는 올 1월 16만 명이 넘는 신규 가입자가 생겼고 총 가입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프리트레이드가 로이터에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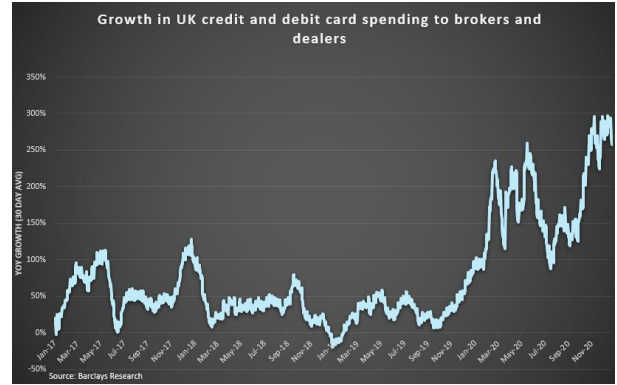
아담 도드즈 프리트레이드 CEO는 "투자자들이 특정한 주식과 자산의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때론 주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레딧의 주식광들은 유럽에서도 이미 기반이 형성 중이던 개인투자자 거래열풍을 일으켰다. 외출제한으로 외출을 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 자금을 투입하면서 거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이러한 투자열풍이 일어난 것이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는 저금리, 높은 부동산 가격, 부적절한 연금 시스템 등 유럽 지역의 거시경제적 요소와도 연관이 있다고 닉 보르토틀 BUX 공동 CEO는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의 레딧 열풍이 이런 상황에 불을 지폈다고 말했다.

영란은행에 따르면 바클레이즈 고객들의 신용·직불카드(주식)중개 수수료 지출은 1월 전년비 300% 이상 증가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규제당국들과 일부 브로커들은 새로운 열풍이 몰고 올 리스크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의 손실에 주목한다.

미국 내 일부 투자자들은 레딧 열풍 초반 며칠동안 꽤 많은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들은 게임스톱 주식이 폭락함에 따라 커다란 손해를 봤다. 한때 483달러까지 치솟았던 게임스톱 주식은 지난 주 51달러까지 하락했으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규제 당국이 이번 사태를 주의깊게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지역의 많은 투자자들은 유럽 주식보다 미국 주식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런던에 있는 한 미국계 은행 거래팀장은 "우리는 미국 이외 지역 소액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다. 또 일부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에 대한 베팅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젊은 해외 투자자들은 자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레딧 주도 주식 뿐만 아니라 애플, 아마존, 테슬라 등 유명 기술주들까지 갖고 있기 때문이다.

프리트레이드는 영국 소액투자자들의 주문이 55%는 미국 상장 주식으로 45%는 영국 상장 주식으로 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칼럼)-바이든, 인플레이션 리스크 피하며 경기 부양할 수 있을까?

(※ 이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이터/브레이킹뷰스) -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정정책 접근 방법은 모 아니면 도가 될 것이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등 일부는 바이든의 1조 9,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다소 지나친 것이 아닐까 우려하고 있다. 팬데믹과의 싸움이 한창인 때 정확한 지원 규모를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지금 지출 타겟을 잘 설정한 뒤 이후에 인프라 투자에 전력을 기울일 수는 있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는 현재 제안된 부양책 규모가 경제가 자연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수요를 창출해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추가 수요가 유희경제력(slack)의 4배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며, 서머스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의 자신감에는 일부 근거가 있다. 팬데믹 이전 실업률이 3.5%까지 하락했음에도 인플레이션 및 임금 상승은 통제 하에 있었고, 그렇기에 구조적인 무언가에 변화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가 이미 제로 부근인 가운데 제품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통화정책을 이용해 지금 성장률을 끌어올리기보다는 나중에 과열된 경제를 진정시키는 것이 더 쉽다고 여길 것이다.

경제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면 물가 압력이 실제로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어쨌든 바이든 역시 막대한 규모의 인프라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기를 원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 위로 올라가는 것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너무 빠르게 상승할 경우 금리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 현재 국가 및 민간 부채 수준을 감안할 때 이는 금융시장과 경제를 20여년 전보다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돈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 한 예로 인프라를 들 수 있다. 도로, 전력망 등 공공 투자는 착수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고, 이에 경제는 큰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지 않고도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 반면 가계에 지급되는 현금도 필요한 이들에게 신중하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 과열을 조장할 수 있다.

긴급 재정 부양책 타겟을 확실히 설정하고 필요한 공공 투자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면 바이든과 옐런은 성장률을 높이고 불평등을 줄이는 동시에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서머스의 경고는 합리적이며 바이든이 피해야 할 함정을 언급한 것이다.

(단독)-韓 무위험지표금리 '국채·통안 RP' 선정..산출기관·방법 후속논의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국내 무위험지표금리 (Risk-Free Reference Rate, 이하 RFR)로 국채·통안채 담보 RP 금리가 선정됐다.

9일 소식통에 따르면 대체지표개발작업반은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친 투표 절차를 거쳐 국채·통안채 금리를 RFR로 최종 선정했다.

26개 기관으로 구성된 시장참가자그룹(MPG, Market Participants Group)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집계했다. 지난해 12월 초 열린 첫 번째 투표에선 국채·통안채 담보 RP 금리를 RFR로 선정한 곳이 23곳, 은행·증권금융 차입 콜 금리를 선정한 곳이 3곳이었다.

지난 1월 중순 이뤄진 두 번째 투표에선 국채·통안채 담보 RP 금리를 RFR로 선정한 곳이 22곳, 은행·증권금융 차입 콜 금리를 선정한 곳이 4곳이었다.

세 번째 투표는 이달 3일부터 4일까지 이뤄졌다. 한은은 당초 만장일치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세 번까지 회의를 진행해 표결 참가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낸다는 입장이었지만, 두 번째 투표에서 만장일치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세 번째 회의에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이번 세 번째 투표에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이뤄지면서 국채·통안채 담보 RP가 RFR로 최종 선정된 것이다.

한은은 지난 1월 말 MPG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 콜을 열어 RFR 선정을 위한 최종 의견을 조율하기도 했다.

RFR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산출기관과 산출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RFR 산출기관으로 현재 RP 금리 공시를 맡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을 그대로 이용할지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새로운 역할을 맡을지가 관심이다.

RFR 산출방식 역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콜 금리 계산에 사용되는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을 사용할지, 모든 거래의 중간값을 도출하는 방식을 사용할지 등을 놓고 향후 논의가 이어지게 된다.

(초점)-최근 2주간 원화 절하폭 가팔랐던 이유와 단기 전망

(※ 2월 9일 기사임)

서울(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달러 약세 전환에 1110 원대로 밀려 시작했지만, 최근 2주간 환율의 상승 속도는 거침이 없었다.

올해 달러 대비 원화 절하율은 약 3% 수준으로 아시아 통화 중 단연 선두다.

지난주 환율은 1130 원 부근까지 급등해 작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훌쩍 올라섰고, 주간으로는 5주 연속 올라 2018년 7월 하순 이후 최장 상승 기록을 세웠다.

무엇보다 지난주까지 최근 2주간 환율은 약 30 원 급등(일중 저점과 고점 차이)함에 따라 이에 따른 배경이 조명받고 있다.

▲ 외인 코스피 리밸런싱에다 강 달러 직격탄

전달 마지막 주 원화 절하를 이끌었던 주요인은 증시 변동성이었다. 코스피는 한 주간 5.2% 급락했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약 5.3조원어치를 내다 팔았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발 증시 변동성과 외인들의 코스피 리밸런싱 영향이 지목됐다. 즉 게임스톱 등 개인 투자자와 헤지펀드 간 대립 구도 속에 공매도 손실 파장에 따른 단기 조정 유인 확대와 코스피 상승

에 따른 리밸런싱 등에 외국인들의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으로 해석됐다.

한국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보유 주식 가치는 1월 25일 기준 816.7조원(시가총액의 36.92%)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외국인 보유 평가 잔액을 감안한 포트폴리오 조정도 있었고 게임스톱 등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주식 비중을 조정한 영향도 있었다"고 진단했다.

또 2월 들어서는 미국 경제 회복 선점 가능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달러가 반등 압력을 키웠고 이에 역외 투자자들의 강도 있는 달러 매수세가 뒷받침됐다.

한 시장 관계자는 "1월 말에는 주식 관련 수급 영향이 컸다면 2월 들어서는 달러 강세에 반응한 역외 비드가 맞물려 환율이 반응했다"고 말했다.

CFTC 데이터에 따르면 2일로 끝난 한 주간 투기세력들의 달러 순숏포지션은 7주일 만의 최저치로 줄었다.

▲ 어디로 튈지 모르는 달러

미국 경제 회복 기대 속에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1년 만의 최고치로 오르면서 단기 달러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최서영 삼성선물 이코노미스트는 8일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만 강한 회복 추세를 계속한다면 미국만의 강한 성장이 신흥국에 부담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근 나타나는 미국 장기금리 및 달러화 반등세는 신흥국들이 미국 금리 상승에 대비해야 하는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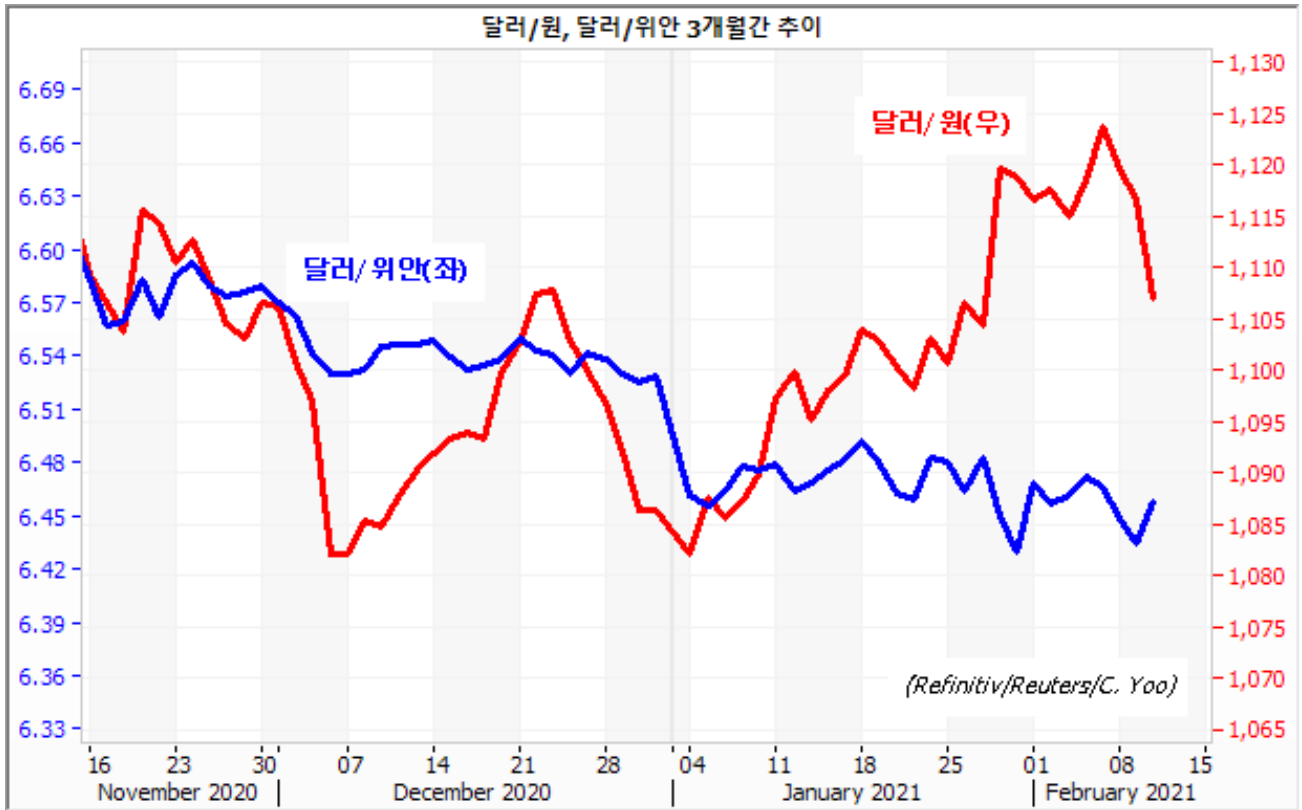
이런 가운데 달러/원 변동성 리스크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한 은행 외환 딜러는 "달러/원 하단은 단단한 비드 때문에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면서도 "아직 환율의 방향성을 확실히 가늠할 수가 없는데 일단 잦은 변동성 리스크에는 대비할 때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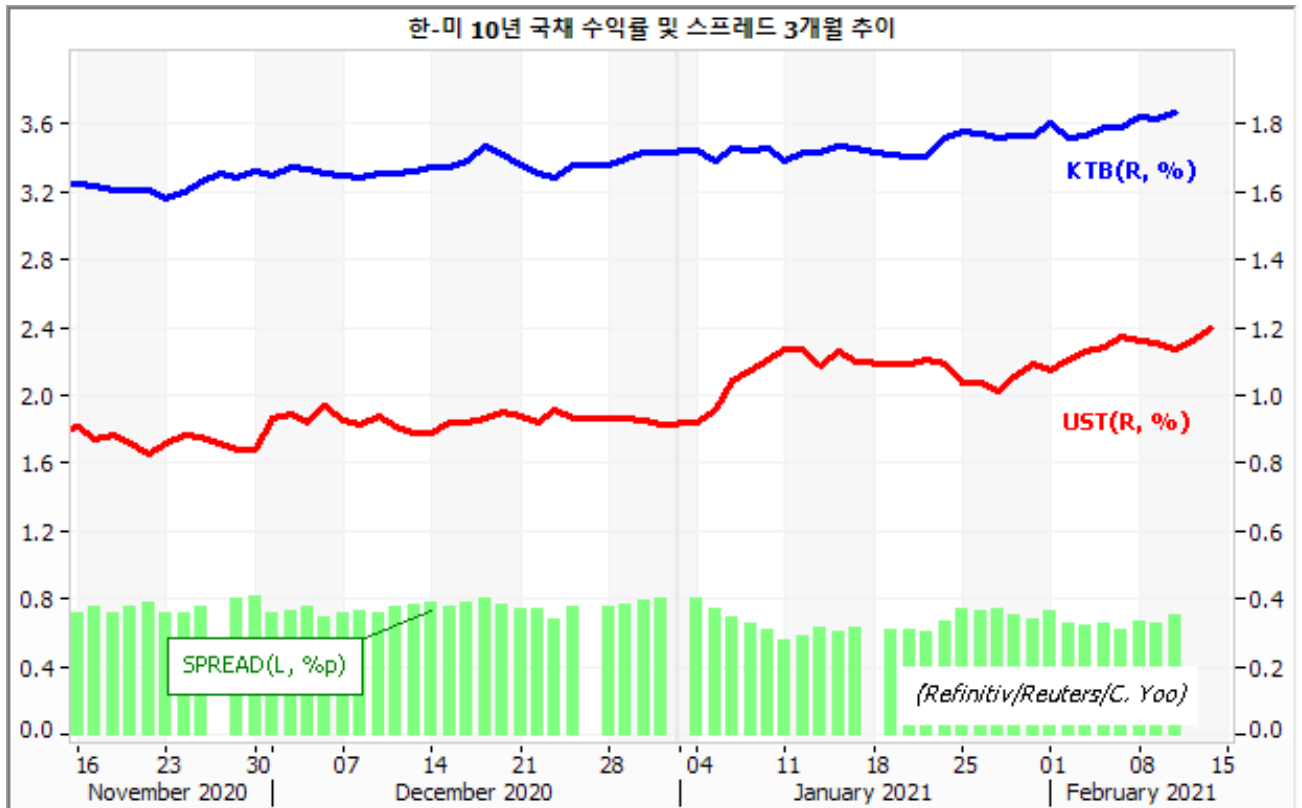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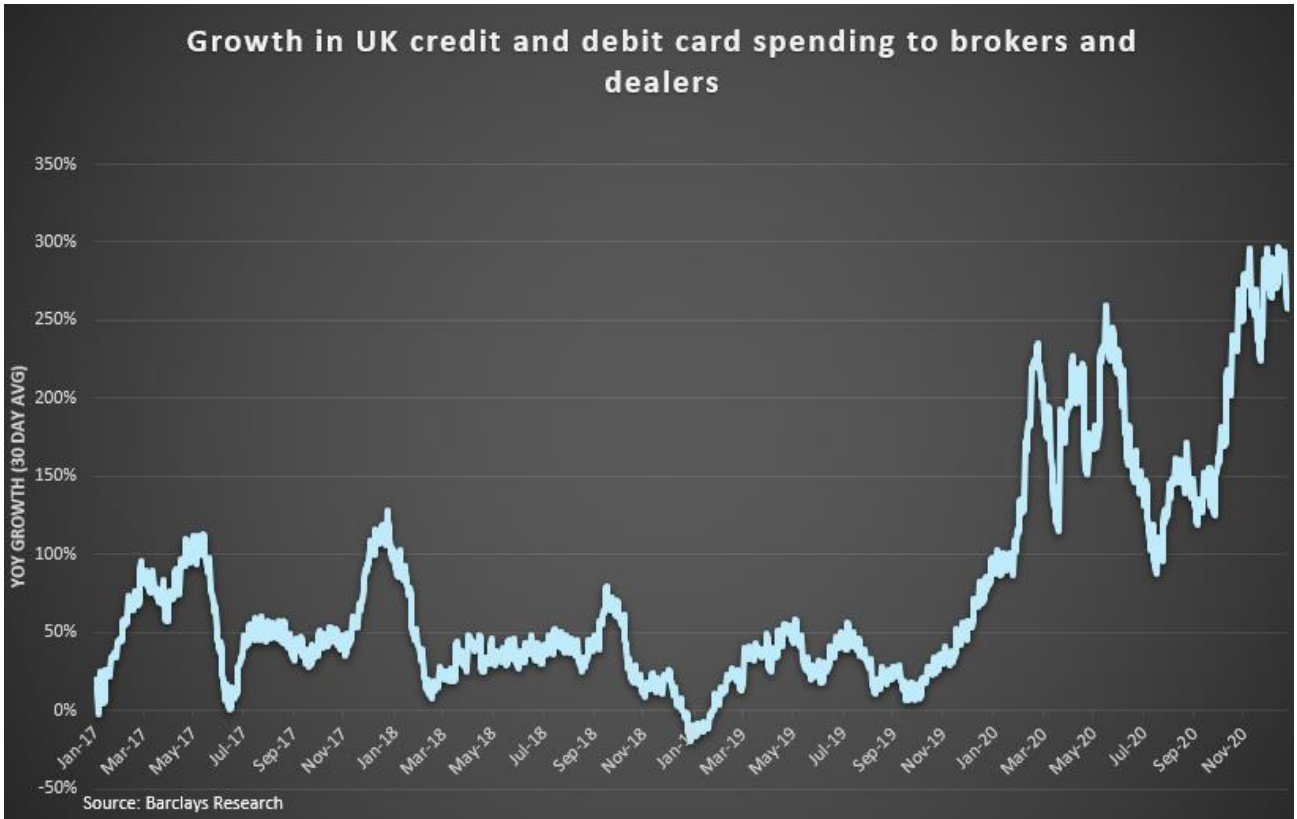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